

젊은 미혼 남성에서의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염창환 · 최윤선* · 조경희

Abstract

The Comparison of Knowledge and Attitude of AIDS between the Sex Group with a Prostitute and the Non-sex Group in Unmarried Young Men

Chang-Hwan Yeom, M.D., Youn-Seon Choi, M.D.*, Kyung-Hee Choi,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lsan Hospital, Koyang, Korea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Guro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 After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is known to be a fatal disease, efforts and studies are made to determine the cause, treatment method and method of preventing infection. However, no treatment method is present and vaccine development has not been made. Therefore,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method is prevention, and almost 100% prevention is possible when correct preventive measures are taken. We suggest effective prevention education by comparing knowledge and attitude of those unmarried men who had sexual encounters with prostitutes (high risk group) and those with no sexual encounters with prostitutes (low risk group).

Methods : From January 1, 2000 to June 30, 2000, a survey was done in 516 unmarried soldiers and college students. With the collected data, chi-square test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 knowledge on AIDS, and attitude on AIDS between the high risk group and low risk group. One-way ANOVA test was us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scores on knowledge between these two groups.

Results : Among 516 unmarried men, 256 men (49.6%) fell into the high risk group and 260 men (50.4%) into the low risk group. Both groups showed that they heard of AIDS during their middle school years. The main route of obtaining knowledge on AIDS was through TV programs with 124 men (48.4%) in the high risk group and 167 men (64.2%) in the low risk group ($P=0.002$). Among 20 items, the average score on knowledge was 13.9 ± 1.9 in the high risk group and 14.1 ± 1.8 in the low risk group with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책임저자: 염창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2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Tel : 031)900-0740, Fax : 031)900-0902

groups ($P=0.191$). Two item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low risk group compared with the high risk group; these were the item of AIDS being transmitted through transfusion ($P=0.014$) and through mosquitoes ($P=0.009$). As for attitud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present in the item stating that AIDS patients should be isolated in the high risk group compared with the low risk group ($P=0.029$).

Conclusions :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both the high risk group and low risk group obtained knowledge on AIDS through TV. No statistical difference was present between the two groups other than the high risk group showed statistically high results in two items on knowledge and one item on attitude. Thus, these results showed that exposure to AIDS can be lowered with better knowledge and the attitude of those with a low risk of infection was more positive.

Key Words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Knowledge, Attitude

서 론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진단된 후 빠른 속도로 전세계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으며[1, 2], 현재 서구 선진국 일부, 아프리카 대륙 및 아시아의 인도와 태국이 이미 영향권에 진입되어 감염자의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환자 수는 약 2,200만명으로, 그 중 어린이가 100만명을 차지하며[3], 2000년대에는 4,000~10,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에이즈는 다른 질환과 달리 감염 경로가 대부분 혈액과 성교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며, 잠복기간이 길어 그로 인한 높은 전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환자 수는 예상외로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원 인규명과 치료방법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과 연구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4], 세계 각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해결은 요원하다. 현재는 에이즈 감염에 따른 이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치료만이 다소간 효과적이며, 에이즈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거나 백신을 통한 면역은 향후 몇 년이 더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며,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하여 행하면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여, 인간에게 잠재적 환자로서의 공포감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에이즈 감염자수는 외국에 비교해 볼 때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볼 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현재까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외국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었다. 그러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전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비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특히 성적 요구도가 높은 20대 미혼 남성에서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의 지식과 태도를 비교하여 효과적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 대상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진단되지 않은 미혼인 군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설문에 한 항목이라도 누

124 젊은 미혼 남성에서의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락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충실히 응답한 총 516명 중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6명,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60명이었다.

2. 연구 방법

대상자에게 3가지 부분(인구 통계학적 부분, 지적 부분, 태도 부분)으로 나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36개 항목을 질문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부분에는 총 8개 항목으로 나이, 학력, 가족 수입, 종교, 처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안 시기와 경로,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데 도움을 준 것들이다. 지적 부분은 총 20개 항목으로 감염 경로, 우리 나라의 현황, 임상 경로, 치료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으로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계산하였다. 태도 부분은 총 8개 항목으로 만약 본인이 에이즈 환자라면 취할 태도와 주위 에이즈 환자에 대한 본인의 태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각각 chi-square test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지식과 태도를 one way ANOVA를 가지고 비교분석하였다. P-value<0.05일 때를 통계적 유의 수준으로 보았다.

결 과

1. 인구통계학적 특징

미혼 남성 516명중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256명(49.6%),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260명(50.4%)이었다. 학력 수준을 보면 대학교 재학생 이상의 학력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200명(48.3%),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214명(51.7%)이었고(P=0.130), 가족 수입면을 보면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01명(52.6%),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91명(47.4%)이었다(P=0.270). 종교적 측면을 보면 기독교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09명,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117명이었다(P=0.335). 이들 세 인자는 각각 통계학적인 의미는 갖지 못하였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는 시기는 두 집단 다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은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rticipants

Parameter	sex group	non-sex group	P-value
Academic background			
high-school	56	46	0.130
college	200	214	
Total income of family			
≤ 2,000,000	155	169	0.270
≥ 2,000,000	101	91	
Religion			
Christian	109	117	0.335
Buddhism	68	71	
Other	79	72	
First recognized time of AIDS			
primary school	160	162	0.188
middle school	34	24	
high school			
Source of knowledge			
TV	124	167	0.002
newspaper/Book	68	49	
friend and family	64	44	
Past history of Sexual Transmitted Disease			
Yes	46	4	0.000
No	210	256	
Received HIV test			
Yes	72	48	0.060
No	184	212	
The need of education for AIDS			
Yes	226	227	0.420
No	30	33	

것으로 나왔으며, 각각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60명(62.5%),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162명(62.3%)으로 나왔다($P=0.188$).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주된 지식은 방송을 통해서 얻는 경우는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124명,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167명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더 높게 나왔다($P=0.002$).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46명(19.0

%),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4명(1.5%)으로 나왔고($P<0.0001$), 후천성 면역 결핍증 검사를 받은 경우는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72명(28.1%),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48명(18.5%)으로 나왔다($P=0.060$). 에이즈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226명(88.3%),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227명(87.3%)으로 나왔다($P=0.420$).

Table 2. The Knowledge of AIDS

Question	No.(%)		P-value
	sex group	non-sex group	
1.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shaking hands	248	254	0.382
2. There is HIV in the saliva of AIDS patients	100	100	0.480
3.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kissing	159	172	0.193
4. When you have oral ulcer, you can contaminate through kissing with patient.	224	230	0.421
5.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sexual relation	249	253	0.595
6. If you have the use of condom, you cannot contaminate through sexual relation with patient.	42	48	0.309
7.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drug injection utilizing same needle.	250	258	0.138
8.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receiving contaminated blood transfusion.	250	260	0.014
9.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anal sex with patient.	242	241	0.251
10.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oral sex with patient	192	206	0.149
11.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using in the same toilet.	183	198	0.134
12.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bathing in the same pool.	190	194	0.499
13.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drinking from the same glass	166	166	0.443
14.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eating from the same food	177	177	0.434
15.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mosquito's bite.	77	105	0.009
16. The mode of AIDS contamination include using in the same razor blade or toothbrush.	197	196	0.377
17. A newborns of a positive HIV mother will be contaminated during pregnancy.	224	226	0.474
18. The cause of death is cancer or pneumonia in AIDS patients.	70	58	0.111
19. AIDS can be cured if patients medicine drugs.	227	240	0.104
20. Now the number of patients is about 1,000-1,500 in Korea.	88	84	0.343
Total score	13.9± 1.9	14.1± 1.8	0.191

2. 지식 부분

지적 부분에서는 평균 점수가 총 20개 문항 중 매춘부와 성교를 한 집단은 13.9±1.9, 매춘부와 성교를 하지 않은 집단은 14.1±1.8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었다(P=0.191). 20개 문항 중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수혈을 통해 전염된다는 항목(P=0.014)과 모기를 통해 에이즈가 전파된다는 항목(P=0.009)이었다. 혈액을 통해 전염된다는 항목에서의 정답자수는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250명(97.7%),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260명(100.0%)으로 나왔

고(P=0.014), 모기를 통해 에이즈가 전파된다는 항목에서의 정답자수는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은 77명(30.1%),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105명(40.4%)으로 나왔다(P=0.009).

두 집단에서 정답자수가 50% 미만인 항목은 총 5개 항목이다.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침에 바이러스 균이 있다는 항목에서 정답자 수는 각각 100명, 100명, 콘돔을 사용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안 걸린다는 항목에서 정답자 수는 각각 42명, 48명, 모기를 통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균이 전염될 수 있다는 항목에서 정답자 수는 각각 77명, 105명,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

Table 3. The Young Men's AIDS Knowledge-comparison according to Attitude

Attitude	sex group	non-sex group	P-value
How about you if you are AIDS patient ?			0.123
1) Treatment	194	62	
2) No treatment	209	51	
How about you if your friends or family are AIDS patient ?			0.378
1) Avoid	48	45	
2) Help or no problem	208	215	
How about you if you use in same room of hospital ?			0.194
1) Move to other room or hospital	139	152	
2) No problem	117	108	
Can you do the service for AIDS patients ?			0.418
1) Yes	114	142	
2) No	123	137	
Do you feel the need that a patient segregated from the others ?			0.029
1) Yes	150	126	
2) No	106	134	
Do you think who ask to pay the medical costs for AIDS patient ?			0.793
1) government	134	143	
2) patient	49	41	
3) both	73	76	
Do you think that patients have a job ?			0.485
1) Yes	174	176	
2) No	82	84	
Do you think that patients delivery a baby ?			0.247
1) Yes	58	60	
2) No	198	200	

자는 암이나 폐렴으로 죽는다는 항목에서 정답자 수는 각각 70명, 58명, 현재 한국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수는 1,000~1,500명 사이 라는 항목에서 정답자 수는 각각 88명, 84명으로 나왔다.

3. 태도 부분

태도 부분에서는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면 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이 각각 194명, 209명이었고, 가족이나 친구가 환자라면 돕거나 평소와 동일하게 행동하겠다는 사람이 각각 208명, 215명이었으며, 같은 병실에 에이즈 환자가 있으면 병실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각각 139명, 152명이 있었다. 또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각각 114명, 142명이었고, 환자를 격리시켜야 된다는 사람은 150명, 126명이었으며, 환자 치료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34명, 143명이었다.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직업을 가져도 된다는 사람은 각각 174명, 176명이었고, 아기를 낳아도 된다는 사람은 각각 58명, 60명이었다. 이중 통계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환자를 격리시켜야 된다는 항목에서만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왔다($P=0.029$).

고 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에이즈 환자 수가 적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실정이나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대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성에서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

는 집단 사이를 비교하였는데 두 군간의 인구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주된 지식은 방송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두 군 다 제일 높았고, 특히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통계학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P=0.002$). 다른 연구에서도 텔레비전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주된 지식을 얻는 장소로 나왔다[5]. 그러나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텔레비전을 통한 지식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신문이나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은 적었다.

지적 부분에서 평균 점수가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은 14.1 ± 1.8 으로,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 13.9 ± 1.9 보다 더 높지만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P=0.191$). 20개 문항 중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수혈을 통해 전염된다는 항목($P=0.014$)과 모기를 통해 에이즈가 전파된다는 항목($P=0.009$)이었다. 이는 지식이 높을수록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노출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두 집단에서 정답자수가 50% 미만인 항목이 총 5개 항목으로 25%나 차지하여 좀더 바른 지식의 습득이 전반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태도 부분에서는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수치상 높게 나왔지만 한 가지 항목만 빼고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었다. 통계학적인 의미를 갖는 항목은 환자를 격리시켜야 된다는 부분으로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왔다($P=0.029$). 이는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태도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보이므로 바른 지식이 더욱더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 대한 태도는 연구마다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즉 일

부 연구에서는 태도와 지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6, 7]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별 관계가 없다고[8] 한다. 그것은 지식은 학교 수업이나 책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태도는 그 집안과 살아온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도덕성을 중요시하므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 대한 사회 여론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는 앞으로 더 늘 것이다. 현 단계에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을 통한 예방만이 우리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공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 대한 편협과 불신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일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교육으로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외국의 연구에서 방송을 통해 사람들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9, 10]. 방송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용 매체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송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에이즈 홍보나 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창 시절에 대부분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지식을 얻기 때문이다[7, 11, 12]. 만약 이 시기에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들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무지 상태에서 성생활을 갖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고교 시절부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13, 14].

결론적으로 바른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매춘부와 성관계를 하는 위험 군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될 기회를 낮출 수 있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 대한 제한점으로는 몇 살 때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낮출 수 있을 지는 제시할 수 없었다.

요 약

배 경 :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치료방법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과 연구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백신 개발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며,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하여 행하면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저자 등은 매춘부와 성경험이 있는 고위험군과 매춘부와 성경험이 없는 저위험군의 지식과 태도 비교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미혼인 군인과 대학생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응답된 자료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 지식, 태도를 chi-square test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또 두 군간의 지식 점수 비교는 one-way ANOVA test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 미혼 남성 516명중 고위험군은 256명(49.6%), 저위험군은 260명(50.4%)이었으며,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는 시기는 두 집단 다 중학교 때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 질환에 대해 지식을 얻게 되는 주된 경로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고위험군은 124명(48.4%), 저위험군은 167명(64.2%)로 나왔다($P=0.002$). 지적 부분에서는 평균 점수가 총 20개 문항 중 고위험군은 13.9 ± 1.9 , 저위험군은 14.1 ± 1.8 이었고,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P=0.191$).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는 20개 항목 중 2개 항목으로 수혈을 통해 전염된다는 항목($P=0.014$)과 모기를 통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군이 전염될 수 있다는 항목($P=0.009$)이었다. 태도 부분에서는 환자를 다른 사람과 격

리시켜야 된다는 항목에서만 통계학적으로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왔다($P=0.029$).

결론: 본 연구에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모두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식을 주로 습득하고, 지식과 태도 부분에서 일부분을 제외하곤 두 군간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지식부분은 2개 항목, 태도 부분은 1개 항목에서 저위험군이 고위험군보다 통계학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지식이 높을수록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노출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태도도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Centres for Disease Control. Pneumocystis pneumonia-Los Angeles.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1981;30:250-253.
2. Gottlieb MS, Schroff R, Schanker HM, et al.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and mucosal candidiasis in previously healthy homosexual men. New Engl J Med 1981;305:1425-1431.
3.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Estimated cases of adult HIV infection and AIDS. January 1, 1997.
4. Fauci AS, Lane HC.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Disease: AIDS and related disorder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ango DL.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4th ed. New York : McGraw-Hill, 1998;1791-1855.
5. Brook U.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of pupils attending urban high schools in Israel.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1999;36:271-278
6. Brown LK, Nessau JH, Barone VC. Differences in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by grade level. J School Hlth 1990;60:270-275.
7. Krasnik A, Wangel M. AIDS and Danish adolescents-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relevant to the prevention of HIV infection. Dan Med Bull 1990;37:275-9.
8. Morton AD. Attitudes to and knowledge about AIDS lack of a correlation. BMJ 1986;293:1212
9. Ross MW, Carson JA, Cass VC, et al. Knowledge of AIDS in australia: A national study. Hlth Educ Res 1988;3:367-373.
10. Nutbeam D, Smail S, Catford J, griffiths C, Nugent Z. Changes in public knowledge and attitudes to AIDS in technical reports of health promotion authority for Wales, CWHPA 89: GHW1, 1989
11. DiClemente RJ. Preventing HIV/AIDS among adolescents. Schools as agents of behavior change. JAMA 1993;270:760-762.
12. Holtzman D, Lowry R, Kann L, Collins JL, Kolbe LJ. changes in HIV-related information-Sources, instruction,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US high school students, 1989 and 1990. Amer J Pub Hlth 1994;84:388-393.
13. Tuchinda S, chatptayasonondh T, Teraratkul A.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regarding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J Med Assoc Thai 1998; 81:130-135.
14. Siegel D, DiClemente R, Durbin M, Krosnovsky F, Saliba P. Change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IDS related knowledge, misconceptions, attitudes and HIV-preventive behavior: Effect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AIDS Educ Prev 1995;7:534-543.